

9/18/22

설교 제목: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10 장 1-21 절

(요 10: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요 10:2)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요 10:3)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절판주** 왕상 19:12

(요 10:4)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요 10:5)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 10:6)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요 10: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 10: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요 10: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 10: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 10:12) 삯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요 10:13)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삯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요 10:14)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절판주** 요 10:11

(요 10: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 10:16)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 10:17)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요 10:18)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 10:19)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요 10:20)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요 10:21)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님은 본서를 통해 계속 당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십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그 사실을 증언하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그를 공회에서 출교시킨 일이 있던 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요 10: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요 10:2)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기서 양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시고 아들을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한 것이고 양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당신이 참 목자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신 유일한 목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자신이 구세주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양 무리에게 접근하는 자들은 모두 영혼을 훔치려는 절도요 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그 누구의 말도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경의 진리와 다른 이념이나 교리나 주장은 다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세우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겔 34:22) 그러므로 내가 내 양 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 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겔 34:23)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겔 34:24) 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와 말이니라

에스겔은 남 유다가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말미암아 멸망했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속에서의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에 비유하여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 듣고 모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요 10:3)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 10:4)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요 10:5)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는 것은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당신의 양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과 정성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지기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양은 오직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 자신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입니다.

여기서 교회 사역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이 자신의 양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맡겨진 하나님의 양 하나 하나에 모든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포함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 10:6)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인 연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의미를 친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 방금 전에는 목자로 비유하시더니 이번에는 양의 문에 비유하십니다.

(요 10: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목자와 양의 문을 한 가지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동굴 혹은 돌로 쌓은 벽이나 나뭇가지로 엮은 담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양의 우리로 만들어 거기에 단 하나의 출입문을 내고 목자들이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을 들이고 내보내고 하였습니다.

또한 목자는 밤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문을 가로막은 채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목자는 곧 양의 문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양의 문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 곧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신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십니다.

(요 10: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란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척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등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에게 현혹되는 것은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심을 다시 한 번 선포하십니다.

(요 10: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 10: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세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인도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신령한 영의 양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의 양식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며 그 생명을 장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강조하십니다.

(요 10: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 10:12) 샅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요 10:13) 달아나는 것은 그가 샅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요 10:14)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요 10: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당신의 양을 알고 양도 당신을 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들 예수께 주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같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선교에 대한 당신의 사명도 언급하십니다.

(요 10:16)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는 이방인 중 택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요 10:17)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요 10:18)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계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을 높이사 만물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계약을 무조건적으로 지켜야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계약을 이행하거나 거부할 선택권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계약을 순전한 당신의 자유 의지로 신실하게 순종하여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인하여 유대인들 사이에 또 다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 10:19)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요 10:20)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요 10:21)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양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와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하신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요 1:1-2).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를 세상의 참 빛으로 알고 따라야 합니다(요 1:9, 3:19, 8:12, 9:5).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요 3:16-17, 36).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 줄 영생의 샘물을 주시는 이로 믿어야 합니다(요 4:14).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시는 참 떡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요 6:35, 47-51, 53-58).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요:25-26).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과 영생과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받아들이고 평생 그와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만 참 생명이 있고 생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